

사회복지시설 탐방 28 샬롬하우스(평화의 집) 파스톨 간사

외국인 근로자의 평화로운 심터로 운영

“별되고, 지친, 갈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화로운 심터,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고용주간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02년 외국인 선교와 심터로 포천시 신음동 예원빌딩 4층에 개소한 샬롬하우스(이하 평화의 집)는 직장과 집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머물며, 구직활동과 상담을 통한 권리 회복 등 각종 사안을 해결해 주고 있다.

평화의 집은 최초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사)경기도고용복지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별다른 지원 없이 필리핀 출신의 간사인 파스를 존스(39·Pastor Jones Galang) 씨가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파스를 씨는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위해 한국에 발을 디딘 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한국인 고용주와의 원활한 관계회복을 위해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천에 평화의 집을 개소한 이유에 대해 파스를 씨는 “서울지역은 외국인들을 위한 심터가 활성화돼 있으나, 포천은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화의 집은 2002년 개소한 이후 MBC사회복지기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택이소 운영과 심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 총 2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쳐 간 것을 비롯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나, 현재는 30~4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심터에 머물거나 예배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소 침체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스를 씨는 “평화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포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외국인 심터 사업으로 포천지역은 여건상 필리핀인만을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다”며 “천여명의 필리핀인의 권리 회복과 더불어 기존의 포천조직망을 이용해 더욱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고 밝혔다.

현재 포천의 필리핀인은 6개의 조직으로 가산, 내촌, 신북, 영중, 포천동, 선산동, 송우리 등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평화의 집은 현재의 조직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직업알선 등 해결이 있어 우리나라 고용안정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겪은 가장 큰 피해는 임금체불 및 사고 발생시 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화



별되고, 지친, 갈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화로운 심터,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고용주간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평화의 집. (원안은 파스를 씨 부부)

적인 이질감이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스를 씨는 “외국인의 경우 근로시간 외 잔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고, 한국인 고용주의 경우 부족한 임금을 채우기 위해 잔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무단 이탈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적 해소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평화의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문화교실을 열어 한국적응을 돕고 있다.

평화의 집에서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농구대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파스를 씨는 “2002년부터 매년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며 “올해는 지난 달 19일 포천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외국인근로자 페스티벌에

서 농구대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스를 씨는 앞으로 평화의 집의 역할을 확대, 총선센터로서 국적이 상관없이 고용문제 해결 및 상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들과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 031-535-6238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온고지신의 자세



석혜승
본문정사 주지

지난 후에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글에서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온고지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온고지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듯하여 사족을 달면 온고지신이란 옛 것을 소중히 여겨야 새것을 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옛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비록 옛 것에 잘못 된 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장점은 장점으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라는 의미이다. 단점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배척하게 되면 옛것의 장점도 잃게 되고 결국 자신도 많은 단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정치 문화

사회 종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한 가정을 보더라도 완전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가정은 없다. 부모 역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다. 그런데 부모의 단점을 크게 보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어찌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 될 수 있겠는가.

말 그대로 좋은 것이 좋고 새로운 것이 좋고 개혁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명품은 옛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은미의 첫소 생애이야기

통일 우유 보내기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해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가을 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커튼, 소파 커버를 가을 색에 맞는 색상을 바 꾸고 있는데 늦은 시간 텔 레비전에는 가수 조용필의 평양공연에 대해 리허설 방송 중이었다.

이 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이사

게 될 것이다. 최근 남북간 통일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듯이 남북한 어린이들이 우유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 낙농가들도 아침, 저녁으로 착유하며 개체별 유량 유지를 체세포 관리 번식 환절기 질병 등 사양 방송을 보다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을 생각해 본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굿네이버스, 서울신문, CBS방송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에 전국 각지의 낙농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 저신도 참여하겠습니다. 낙농인 여러분,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국민 여러분 숭수수범해서 참여합시다. 남북한 어린이, 우리는 하나 파이팅!

“자원봉사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요”

자원봉사대축제 11월 10일 개최

포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문은주)는 내달 10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2005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기쁨과 보람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대축제는 관내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 학교, 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축제는 박람회와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활동, 문화예술공연 등으로 꾸며지며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정보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자원봉사에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축제에 대한 문의는 포천시자원봉사센터(031-534-5554)로 하면 된다.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김미경 · 영북면지부장

크고 작은 지역소식 전달 최선

‘항상 최선을 다하자’ 좌우명 노력

‘항상 최선을 다하자’를 좌우명으로 삼아 노력하고 있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 김미경(40) 지부장을 만났다.

영북초등학교, 영북중학교, 영북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김 지부장은 글쓰기를 좋아하고 중앙일보 백일장에서도 입상하여 글쓰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으로 위촉돼 지난 1년 동안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사작성은 물론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앞으로 주변의 성실한 주부들을 명예기자로 영입하여 영북면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영북농협 이사로 선출되었으나 조합장의 일반적인 해임으로 방정투쟁을 벌인 결과 농협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원선거시 해임으로 인한 임원자격을 결격사유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각 리별(영북면 19개 리) 대의원 선거시에 의무적으로 여성대위원을 선출하도록 정관 및 농협법을 개정, 공고했다. 또한 조합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2회 이상 연임금지조항을 추가하였으며 해임등 의결의 무효화를 농림부장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강화하여 단위조합내에서의 의결로 인한 출석처리를 방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북농협의 경우 67명 대의원 중 13명의 여성대위원이 선출되어 조합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각 일선농협에서 여성이사를 당면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개선되어 현재 포천시 7개 농협 중 4명의 여성이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점차 농협내 여성조합원 및 여성대위원, 여성이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진숙 · 관인면지부장

관인지역 기사발굴에 노력

박해자 포천동 지부장 동전모으기 감동

“남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관인면지부 김진숙(43·관인면 탄동리) 지부장은 관인초등학교 어머니회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김 지부장은 어머니회 일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포천신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김 지부장은 처음에는 포천신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부명예기자가 되고 관인면 지부장으로 포천신문을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알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 밝혔다.

특히 주부명예기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

2개월에 한번 포천신문사가 있는 동고동까지 가는 길은 멀지만 돌아오면서 차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다고 한다. 지난 13일 임원회의에 참석한 후 영북면지부장과 함께 돌아오면서 서로 자주 만나 좋은 기사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 지부장은 또 최근 경제가 너무 어려워 남편이 건축업체에 종사하는데 일거리가 없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임원회의때 포천동지부 박해자 지부장의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은 감동적이었다. 모아 온 동전을 하나둘 세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을 했으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신문사에서 참 잘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관인면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미려하나마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김진숙 지부장의 차분한 모습에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관인면지부의 낙하고 중요한 기사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장묘문화 개선을 호소하며

우리나라는 민족 고유의 사상을 제외하면 먼저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영향을 받았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묘문화와 관련 해서 본다면, 조상숭배가 근본을 이룬 유교사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며, 예수 부활과 관련한 기독교 문화는 시신을 화장하는 것을 꺼렸고 볼 수 있으며, 유교 또한 조상을 섬겨온 불에 두 번 죽이는 골이라는 생각에 화장을 기피했다. 반면에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스님들의 대시적으로 화장이 보편화되었지만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김현건
포천의제1 부운영위원장

마나 있을까? 관리소홀이나 후손이 없어 주인 없는 묘가 된 무덤들, 방치되거나 조화롭지 못한 납골시설들... 더구나 납골시설은 또 다른 자연 산림 훼손(채석 등)을 가져오며 장례비용 또한 수십 배의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엄두를 못내는 것도 현실인 것이다. 또한 납골묘에서 기온차로 생기는 결로 현상 등으로 부패하거나 벌레들이 생겨나와 코를 찌르는 격한 냄새가 나는 곳이 생겨나 또 다른 환경문제와 민원 전이라는 명제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것인가를 다들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 대안으로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수목장 산골(散骨)을 장묘문화의 새 지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산골(散骨)이란,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잔디 밑 등에 묻거나 산이나 지렁이 장소에 뿌리는 장례방법으로 독일, 스위스, 중국 등에서는 나무뿌리 주변에 산골하는 수목장 형태의 장례방식이 정착해 있다. 으스스하고 음습한 공동묘지나 납골당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성껏 나무와 화초들을 가꾸며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산골공간과 부대시설로 생태공원, 자연휴양림, 산책로, 추모조형물들이 어우러진 정겨운 아름다운 장소인 것이다. 부지나 해소는 물론, 친한 경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십시오”, 아름다운 국토가 묘지로 뒤덮이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동참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함께 노인공경 실천해요”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는 지난 14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 및 여성회관 3층에서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기념식이 앞서 포천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가산농협장 선거 심재호 당선

1천499 유효투표중 심재호 954표 원종호 541표



11일 실시된 가산농협장 선거에서 심재호 후보가 원종호 후보를 403표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사진은 원종호 후보(우)가 심재호 당선자를 축하하고 있다.)

11일 실시된 가산농협장 선거에서 심재호 후보가 원종호 후보를 403표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날 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 1천996명중 1천499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오후 5시40분경부터 6시40분까지 1시간 동안 계속된 개표는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개표 결과 심 당선자는 제1투표구인 가산지역에서 592표를 얻고 제2투표구인 내촌에서는 362표를 획득, 총 954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반해 원종호 후보는 제1투표구인 가산지역에서 362표, 제2투표구인 내촌에서 179표를

얻어 541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원종호 후보는 개표 발표 직후 패배를 인정하고 심재호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달하는 등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신성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한편 가산농협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심재호 당선자는 이번 선거 공약사항으로 ▶총체적 경영원가 절감으로 조합원 복지지원 확대 ▶농협 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한 정교지구 간이지소 신설운영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단체 작목반 적극지원 ▶사임없는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받는 농협구현 등을 내세웠다.

하승민 기자 forme65@paran.com